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과 알미니안 칼빈주의의 태동 : 한국 교회의 선교 운동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김상근

연세대학교 교수, 선교학

I. 들어가면서

이 논문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적 실체를 분석하고 한국 교회에 미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신학적 함의를 선교학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관한 기존의 역사적 분석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아울러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자는 먼저 기존 교회사학자들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과 연관된 역사 서술의 방법을 분석한 다음, 웨일즈와 인도의 대부흥 운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기존 견해와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기존 학계의 기존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무엇보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는 알미니안 칼빈주의(Aminian Calvinism)라는 신학적 유연성을 획득했다는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¹⁾ 알미니안 칼빈주의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구원론 신학의 대세를 이루었으며,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인물은 드와이트 무디가 아닌 찰스 피니(Charles Finney, 1792-1875)였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결론 부분에서 필자는 1907년부터 한국 교회의 신학적 특징으로 자리 잡은 알미니안 칼

1)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알미니안 칼빈주의”는 조지 헛펠드의 “감리교도 칼빈주의”와 밀접한 시대적 연관이 있지만, 미국의 부흥회(Revival) 전통에서 구원의 문제에 개인의 주도적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

민주의는 한국 교회의 선교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교신학적 분석을 마지막으로 제시할 것이다.

“종교 대각성”(Religious Awakening)이나 “심령 대부흥 운동”(Revival Movement)을 학문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제이다. 심령 대부흥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적극적인 참여자(소위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는 심령 대부흥 운동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 이미 한 가지의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로 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종교 심리학적 이해 과정을 부정한다면, 어떤 지지자나 적극적인 참여자도 자신의 종교적 행동을 현대의 이성주의와 조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많은 경우에, 심령 대부흥 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들조차 자신의 개인적 종교적 역량을 부정하고 대신 모든 것이 단지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한다. 아마 1904년 웨일즈 심령 대부흥 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젊은 목사 에반 로버츠(Evan Roberts)가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다.²⁾ 그는 웨일즈 부흥 운동에 미친 자신의 종교적 영향력을 끝까지 부정했다. 따라서 심령 대부흥 운동에 대한 학문적 분석은 대개 연구자의 신앙 고백적 입장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일부 미국 교회사가들은 미국의 식민지 시대에 발생했던(그래서 한국의 심령 대부흥 운동의 원형적 모델이 되었던) 제 1차 대각성 운동(The First Great Awakening)의 역사적 실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존 버틀러(Jon Butler)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 운동(Great Awakening)은 “1740년대에 잠시 발생했던 칼빈주의의 부흥(Revival)”이었을 뿐이라고 보며, 조셉 트레이시(Joseph Tracy)는 1840년대에 처음으로 명명되었던 “심령 대부흥”(Great Awakening)의 역사적 실체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도전적인 견해를 펼치고 있다.³⁾ 조셉 콘포르티(Joseph Conforti)와 프랭크 램버트(Frank Lambert)와 같은 학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버틀러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1830년대의 심령 대부흥”조차 하나의 역사적인 창작(Invention)이었다고 보고 있다.⁴⁾

2) Edward Gitre, “The 1904–05 Welsh Revival : Modernization, Technologies, and Techniques of the Self,” *Church History* 73 : 4 (December, 2004) : 797.

3) Jon Butler, “Enthusiasm Described and Decried : The Great Awakening as Interpretative Fictio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9 (September, 1982) : 309.

4) Joseph A. Conforti, *Jonathan Edwards, Religious Tradition and American Culture* (Chapel

필자의 관심은 이러한 최근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평양 심령 대부흥 운동을 상호 비교하거나, 한국 교회의 현상을 미국 교회 현상의 연장선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논문을 통해 필자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학계의 기존 평가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결과, 한국 교회(특히 장로교회)는 “전통적인 칼빈주의”에서 벗어나 “알미니안 칼빈주의”라는 신학적 유연성을 획득했다는 필자의 주장이 전개될 것이다. 1907년 한국 장로교 독노회에서 결의한 한국 최초의 해외(Oversea) 선교사 이기풍의 파송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알미니안 칼빈주의”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점으로 태동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유구한 전통인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다가오는 2007년을 백 년 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의 리바이벌 계기로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심령 대부흥 운동”의 백 주년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 운동의 백 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II.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적 재구성에 관한 소고(小考)

1. 평양 대부흥 운동의 재구성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적 실체와 신학적 함의를 새롭게 평가하기 위해 우선 이 사건의 전말을 개략적으로나마 재구성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Korea Mission Field*의 기록과 선교사들의 각종 증언에 따르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원산, 서울, 송도, 목포, 평양 등지에서 몇 가지 초기 조짐이 전개되다가,⁵⁾ 1906년 크리스마스 다음날부터 일주일간의 특별 저녁 기도회,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계속된 평안남도 겨울 남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Frank Lambert, *Inventing the Great Awaken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5) 그러나 서울의 정동교회에서 열린 연합 집회에서 그다지 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어 선교사는 평양과 비교할 때 결과는 대단하지 않다고 자평하고 있다. Samuel F. Moore, “The Revival in Seoul,” *KMF* II (April, 1906): 116. 이하 *KMF*의 페이지 번호는 한국교회사연구회에서 복간한 자료의 페이지를 따른다.

자도 사경회, 특별히 1월 6일부터 시작된 특별 저녁 집회 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촉발되었다.⁶⁾ 윌리엄 블레어와 브루스 헌터 선교사도 이 점을 자신들의 저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며,⁷⁾ 브루스 헌터 선교사의 경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겨울 남자도 사경회에 참석한 1,500명의 남자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1월 6일 주일 저녁 집회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기록을 남겼다.⁸⁾ 실제적으로 겨울 남자 사경회를 인도했던 그래함 리(Graham Lee)의 증언도 다른 선교사들의 견해와 일치되고 있다.⁹⁾

한국인의 관점에서 기록된 글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실체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남은(南隱) 김인서 목사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평양 장대현교회의 겨울 남자도 사경회의 저녁 집회를 “조선교회역사상에서 조선교회 첫 번 부흥”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¹⁰⁾ 자국민으로서 부흥 운동 현장에 대한 초기 기록을 남긴 리은승은 「신학월보」 1907년 2월호에서 “평양 오순절락스”라는 글을 통해 평양에서 전개된 심령 대부흥 운동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¹¹⁾ 평양신학교와 기타 여러 교육 기관에까지 확대된 심령 대부흥의 열기에 대한 기록은 *Korea Mission Field*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¹²⁾ 초기 선교사들의 관찰에 의하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열기는 1907년 1월부터 6월까지 평양에서 최고조에 달했다가 전국으로 점차 확산되었다.¹³⁾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장대현교회의 겨울 남자도 사경회 저녁 집회 중에 일어난 사건은 1907년 1월 14일 월요일 저녁 헌터 선교사의 설교에 이어 그래함 리 선교사가 기도 인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최고조에 달했다.¹⁴⁾ 통성기도와 공개적인 회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특징으

6)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201.

7) 윌리엄 블레어·브루스 헌터,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김태곤 옮김(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83.

8) Bruce Hunt, “Impression of an Eye Witness,” *KMF* III : 3 (March, 1907) : 37.

9) Graham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III : 3 (March, 1907) : 33.

10) 김인서, 「靈溪先生小傳」, 『神學指南』 14 : 2(1932년 3월) : 33.

11) 「신학월보」(1907년 2월), 54-62 참조.

12) W. L. Swallen, “God’s Work of Grace in Pyeng Yang Classes,” *KMF* III : 5 (May, 1907); G. S. McCune, “Opening Days at the Theological Seminary,” *KMF* III : 5 (May, 1907).

13) Editorial, “The Religious Awakening of Korea,” *KMF* IV (July, 1908) : 105.

14) Graham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III : 3 (March, 1907) : 33;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 213;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387.

로 나타났다. 집회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공개적인 죄의 고백(Public confession of sin)이 이어졌다.¹⁵⁾ 특별히 1월 16일 장대현교회 수요 기도회에서 주공삼(朱孔三) 장로가 자신이 저지른 공금 횡령과 간음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개함으로써 공개적 죄의 고백은 1907년의 대표적인 부흥 운동 현상으로 정착되어 갔다. 기도회를 인도하던 그레함 리 선교사는 찬송을 불러 집회의 뜨거운 열기를 진정시키고자 했을 정도였다.¹⁶⁾

널리 알려진 대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길선주 목사(당시 장로)의 역할이 매우 컸다. 1월 20일 주일 예배 때 길선주 목사가 설교 도중 노끈으로 몸을 묶고 발버둥 치다 맥쿤(McCune) 선교사에게로 달려가 안기는 퍼포먼스 형식의 독특한 설교를 통해 죄악에 물든 인간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들고 또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었다.¹⁷⁾ 평양에서의 집회 이후 서울 집회에 초청받은 길선주 목사의 설교는 특별한 영적 감화를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이어졌다.¹⁸⁾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현장에서 기도회를 인도했던 그레함 리 선교사의 묘사는 “죄의 공개적 고백”이 얼마나 핵심적인 사건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리 선교사의 글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심령 대부흥 운동을 압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수많은 남자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울부짖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죄책감에 통곡을 했다.”¹⁹⁾

2. 평양 대부흥 운동 연구 요약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한국 교회사가들의 연구는 선교사들의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는 *Korea Mission Field*나 각 교단 선교부별로 기록된 당시의 문헌, 특별히 이 사건의 전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윌리엄 블레어(William Blair)와 브루스 헌트(Bruce Hunt)의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

15) Graham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III : 3 (March, 1907) : 33-37.

16) 윌리엄 블레어 · 브루스 헌트, *op. cit.*, 88.

17) Graham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III (March, 1907), 36-37; James Gale, *Korea in Transition*, 210.

18) 1907년 길선주 목사의 서울집회에 관해서는 Editorial, “Recent Work of the Holy Spirit in Seoul,” *KMF* III (March 1907) : 41.

19) Graham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III : 3 (March, 1907) : 37.

해』(*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와 블레어가 쓴 *Gold in Korea*의 해당 부분에 주로 기초하고 있다.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백낙준, 민경배, 김인수, 서정민, 이덕주 등 대표적인 한국의 교회사가들에 의해 이미 연구되어 왔으며,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을 단일 주제로 확대시킨 연구서도 여러 편 발표된 바 있다. 시론적인 연구는 1976년에 출간된 김진환의 『한국교회부흥운동사』,²⁰⁾ 그리고 2003년에 출간된 박명수의 『한국교회 부흥운동 연구』를 들 수 있다.²¹⁾ 박명수의 연구는 세계 오순절 운동의 역사라는 큰 틀에서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거시적 관점이 돋보인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전문 서적은 박용규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대표적이며, 영어로 출간된 이창기의 학위논문인 *Early Revival Movement in Korea, 1903-1907*도 언급할 수 있다.²²⁾ 특별히 박용규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논의의 심도나 책의 구성 면(총 702페이지)에서 그간의 연구 업적을 총망라한 학문적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소위 에큐메니칼 진영에 속한 교회사가들의 평가는 대부분 백낙준의 논점에서 출발하여,²³⁾ 한국 기독교의 비정치화와 탈현실주의라는 큰 구도에서 전개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경배, 주재용, 서정민, 이덕주 등의 평가가 이 범주에 속한다.²⁴⁾ 이러한 견해를 반박하면서 미국의 제 3차 심령 대부흥 운동의 영향권 아래에서 웨일즈와 인도, 그리고 평양에서 범세계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소위 복음주의 신학 노선을 따르는 교회사가들의 견해이다. 김인수와 박용규의 견해가 여기에 속한다.²⁵⁾

20) 김진환, 『한국교회부흥운동사』(서울: 크리스찬비전사, 1976).

21) 박명수, 『한국교회 부흥운동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22)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서울: 생명의말씀사, 2000); Chang Ki Lee, *The Early Revival Movement in Korea (1903-1907): A Historical and Systematic Study* (Zoetermeer: Boekencentrum, 2003).

23) 백낙준은 평양 대부흥 운동을 “위대한 종교적 각성”이라고 총평하면서 (1) 기독교가 한국에서 근거를 잡게 되었고 (2) 한국인 신자들과 선교사들 간의 이해 증진이 도모되었으며 (3) 성경 공부(사경회)와 기도라는 한국 기독교의 관습을 세우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389-392.

24)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신개정판(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270-277; 주재용,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사적 비판: 1907년 부흥 운동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1978년 9월호); 서정민, “초기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이해: 민족운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서울: 종로서적, 1986): 233-283; 이덕주, 『한국토착교회 형성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154-156.

III.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재평가

1. 웨일즈와 인도의 부흥 운동이 평양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박용규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사가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4년에 발생했던 웨일즈와 인도의 부흥 운동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실제로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났던 심령 부흥에 대한 내용을 하워드 존스톤(Howard Johnston) 박사가 직접 서울(1906년 9월)과 평양(1906년 10월, 장대현교회)에서 소개하였고 동일한 심령의 대각성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을 촉구하는 설교를 한 바 있다.²⁶⁾ 평양 장대현교회의 집회에 참석하여 하워드 존스톤의 설교를 들었던 길선주(당시 장로)가 웨일즈에 입했던 성령받기를 자원하는 장면은 교회사가들에 의해 거듭 인용되고 있다.

博士는 章臺岾教會에 來하여 說教할새 웰스 地方과 印度教會 復興 狀況을 說明하고 “朝鮮에서는 누가 聖靈充滿을 맞고져 하느냐” 願하는 者는 擧手하고 起立하라하매 應答하는 者가 업섯다. 當時에 아직 長老인 先生이 感動하는 바 있어 擧手하고 이리서매 博士는 朝鮮의 復興을 豫言하고 도라갓다.²⁷⁾

특별히 박용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외형상의 특징을 이루는 “통성기도”는 존스톤 박사가 웨일즈의 부흥회의 형태를 소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본다.²⁸⁾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웨일즈와 인도, 그리고 평양에서 순

25)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 251, 각주 35 참조. 박용규는 PCUSA의 1907년 *Annual Report* (28-30)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태동에 정치적 동인이 작용했다는 설을 강하게 부정하는 사료를 제시하면서 그 역사적 사례로 조선 황제 폐위 때도 한국 교회가 평화의 질서를 지키며 냉정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26) 그래함 리 선교사는 1907년 3월의 기록에서 1906년 9월 서울 집회에서 존스톤 박사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의 열기가 한국에도 전해질 것을 소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G.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III (March, 1907): 33. 한편 같은 책 41페이지에서는 존스톤이 웨일즈와 인도에서의 부흥이 한국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27) 김인서, “靈溪先生小傳”, 『神學指南』 14: 2(1932년 3월): 33.

28)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 217;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화”, 『神學指南』 66: 4 (1999년 겨울): 165.

차적으로 발생했던 부흥 운동을 연속성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²⁹⁾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과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웨일즈, 인도, 평양, 로스앤젤레스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났다고 이해되어 왔던 심령 대부흥 운동, 혹은 범세계적인 오순절 운동의 연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³⁰⁾ 특별히 웨일즈와 인도의 심령 부흥 운동과 평양에서 발생했던 부흥 운동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났던 방언(Glossolalia, 혹은 Speaking in tongues) 현상은 평양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³¹⁾ 영국 작가인 제시 펜-루이스(Jessie Penn-Lewis)는 1905년 10월의 기록에서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네덜란드 목사가 웨일즈에서 완벽한 영어로 설교하는 “성령의 세례”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³²⁾ 웨일즈 부흥 운동에 참여했던 조지 제프리스(George Jeffreys)가 방언을 동반한 “성령세례”를 받고 향후 엘림 오순절 운동(Elim Pentecostal Movement)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다니엘 윌리엄스(Daniel Williams)의 경우 페니그로이스(Penygroes)와 선덜랜드(Sunderland)에서도 “방언”을 포함한 “성령세례”를 경험했다.³³⁾ 인도의 경우 1906년 4월 오랑가바드(Aurangabad)에서 열렸던 CMS 집회에 참석했던 여학생들이 방언을 처음 경험했다. 1906년 7월에는 사라(Sarah)라는 일곱 살 난 인도 여자 어린이를 포함한 여러 명에게서 방언이 나타나면서, 방언 현상은 인

29) 예를 들면, Alvin Reid and Malcolm McDow, *Firefall: How God Has Shaped History through Revivals*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7), 295.

30) 예를 들면, Ogbu Kalu, “Modeling the Genealogy and Character of Global Pentecostalism: An Afric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35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entecostal Studies,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rch 23–25, 2006.

31) 근대에 들어와서 방언 현상이 처음 발생한 것은 1831년 에드워드 얼빙(Edward Irving)이 인도하던 런던의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on Regent’s Square)의 예배에서였다. 1875년 무디가 주관하던 런던의 빅토리아 홀에서 열린 YMCA 집회에서 방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무디는 방언을 장려하거나 부흥회의 가시적인 성공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 방언 현상이 부흥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계기는 1904년 웨일즈 심령 대부흥 운동 기간이었으며, 미국의 찰스 팰햄(Charles Parham)에 의해 방언은 “성령세례”의 가시적인 증거로 정착되어 갔다. Vinson Synan, *The Holiness-Pentecostal Tradition: Charismatic Movements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1971), 87–89.

32) [Jessie] Penn-Lewis, “The Revival,” *Christian Patriot* (October, 1905): 6.

33) Donald Gee, *The Pentecostal Movement: Including the Story of the War Years, 1940–1947* (London: Elim Publishing, 1949), 6.

도 심령 부흥 운동의 특징으로 확산되었다.³⁴⁾ 그러나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통성기도가 선교사들에 의해 유도되고 보편적으로 발생했지만,³⁵⁾ 웨일즈나 인도에서 일어났던 방언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웨일즈와 인도의 부흥 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가설은 성령께서 웨일즈와 인도, 그리고 평양에서 신비한 힘으로 공통적인 현상을 초래했다는 기대와 믿음에서 출발한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닌 전적으로 타자(他者)적이며, 초월적인 은혜여야 한다. 기존의 학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기대에서 출발하여 웨일즈와 인도, 그리고 평양을 연속성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평양에서의 심령 대부흥은 타자적이며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였는가?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선교사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 발생한 사건이었다. 무스(J. R. Moose) 선교사의 1906년 1월의 기록에서 이러한 선교사들의 의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³⁶⁾ 평양의 대부흥 운동은 선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기획을 통해 발생한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논증하기에 앞서, 먼저 드와이트 무디의 영향력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드와이트 무디의 영향력에 대한 재평가

1907년 평양에서 발생했던 대부흥 운동이 웨일즈와 인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는 좀더 광범위한 역사적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실, 웨일즈와 인도, 그리고 평양의 상관관계는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진행되었던 미

34) Gary McGee, “Latter Rain Falling in the East: Early-Twentieth-Century Pentecostalism in India and the Debate over Speaking in Tongues,” *Church History* 68:3 (September, 1999): 655.

35)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1월 14일 월요일 정오기도회에서 헌트(Hunt) 선교사의 설교 후 그래함 리 선교사가 회중들에게 통성기도를 요청하면서 촉발되었다.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화”, 『神學指南』 66:4(1999년 겨울): 163; G. S. McCune, “The Holy Spirit in Pyeong Yang,” *KMF* III (January, 1907): 1.

36) J. R. Moose, “A Great Awakening,” *KMF* II (January, 1906): 51-52. 여기서 무스 선교사는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는 한국 교회에 성장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성경 공부나 문서 선교가 아닌 “부흥회”를 통해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부흥회”(Revival)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그는 이 단어를 두 번씩이나 대문자로 기록하고 있다.

국의 소위 제 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대적 흐름 가운데 웨일즈, 인도, 그리고 평양의 부흥 운동이 함께 동반된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 3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 루벤 토레이(Ruben Torrey), 빌리 선데이(Billy Sunday) 등에 의해 순차적으로 주도되었는데, 평양대 부흥 운동의 경우 시대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드와이트 무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가설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특별히 박용규는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의 원류를 추적함에 있어 무디의 직접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특별히 무디의 영향이 가장 강했던 시카고에 위치한 맥코믹(McCormick)신학교 출신들은 신학적으로는 구학과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그 같은 신학적 분위기가 한국 교회 평양대부흥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³⁷⁾

19세기 중기와 후반기에 활동했던 무디의 신학과 평양에서 활동하던 맥코믹 신학교 출신 선교사들을 직접 연결하면서 무디의 부흥 운동이 평양 부흥 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박용규의 견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석으로 보인다. 무디는 유니테리안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인물로 시카고의 YMCA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부흥 운동의 중심인물로 등장했다.³⁸⁾ 그는 신학적으로 어떤 특정한 노선을 지지하는 인물이 아니었으며,³⁹⁾ 칼빈주의적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알미니안적 복음주의의 유희성과 실용성”(The benevolence and utilitarianism of Arminian Evangelicalism)을 추구했던 인물이었다.⁴⁰⁾ 찰스 피니의 영향력을 다

37)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18.

38) 현재까지 출간된 전문 연구서 중 무디의 생애와 신학에 대해 학문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책은 James Findlay, Jr., *Dwight L. Moody: American Evangelist, 1837-189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69)과 Stanley Gundry, *Love Them In: The Life and Theology of Moody* (Grand Rapids: Baker Book, 1976). 후자의 책은 한국에서 번역되었다. 스탠리 군드리, 『무디의 생애와 신학』(서울: 생명의말씀사, 1985).

39) 스탠리 군드리, *op. cit.*, 81-88.

40) Jonathan Butler,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Heaven and Hell in American Revivalism, 1870-1920* (Brooklyn: Carson Publishing, 1991), 2. 조나단 버틀러는 무디에 의해 조나단 에드워드와 찰스 피니에 의해 계승되어 오던 지옥불 설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는 유희적이며 실용적인 알미니안주의로 전환했다고 본다.

문 다음 항목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드와이트 무디의 부흥회는 이성주의(Rationalism)와 알미니안주의(Aminianism)가 적절하게 결합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는 철저하게 열광주의를 배격했던 인물이며,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극도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을 매우 경계했던 사람이다. 무디는 시대적으로 볼 때 찰스 피니의 부흥회 전통을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의 부흥사들이 추구하던 열광주의적인 부흥 운동을 선호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발생했던 감정의 폭발과 공개적인 죄의 고백 현상을 볼 때, 드와이트 무디의 영향보다 찰스 피니의 영향이 더 직접적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3. 찰스 피니의 『부흥에 관한 강연』이 미친 영향

근대 부흥회 운동의 아버지(The father of modern revivalism)로 불리는 찰스 피니(Charles Finney)가 1835년에 출간한 『부흥에 관한 강연』(*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미국 선교사들의 부흥회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⁴¹⁾ 출간 당시부터 수많은 미국과 유럽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찰스 피니의 대표작 『부흥에 관한 강연』은 출간 3개월 만에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기록인 12,000권의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영국에서의 출판에 이어 프랑스어, 독일어, 웨일스어로 즉각 번역되어 널리 읽혀졌다.⁴²⁾ 이 책은 1835년부터 1865년까지 최소한 16판 이상 재(再)인쇄되는 공전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찰스 피니는 전통주의적 칼빈주의에 대항하여 미국의 소위 제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부흥에 관한 강연』에서 반(反) 칼빈주의적 내용이 쉽게 발견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⁴³⁾ 찰스 피니는 전통

41) 찰스 피니의 『부흥에 관한 강연』은 「뉴욕 복음주의」(*New York Evangelist*)지의 편집장이었던 조셉 리비트(Joseph Leavitt)의 주선으로 22주 동안 매주 금요일 부흥의 당위성과 부흥회 운영의 기술 등에 대한 피니의 강연을 담고 있다. 찰스 피니가 미국 교회와 부흥회 전통에 미친 영향은 Sydney Ahistrom,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2), 459-461.

42) Mark Knoll, *America's God: From Jonathan Edwards to Abraham Lincol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07.

43) 찰스 피니, 『찰스 피니의 부흥론』, 25. 찰스 피니와 칼빈주의자들 사이의 신학적 갈등에 대해서는 William McLoughlin, *Revivals, Awakenings and Reform: An Essay on Religion and Social Change in America, 1607-197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124.

적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피동성(被動性)의 강조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찰스 피니는 구원의 문제에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부흥회의 성공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며, 영적 대각성은 “효과적인 부흥회 운영”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인위적인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⁴⁴⁾ 찰스 피니는 심지어 효과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부흥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청중들의 “영적인 흥분 상태”를 인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태해 있다. 많은 일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며 또한 그런 일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방해하므로, 흥분의 파도가 아주 높아져서 영적 장애물들을 전부 휩쓸어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흥분을 불러 일으키셔야 한다.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선 철저히 각성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그들은 순종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억누를 수가 있을 것이다. 흥분된 느낌이 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를 방해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욕망, 욕구, 감정들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의지는 어떤 의미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구들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각성시켜서 죄의식과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과 욕구에 맞서는, 흥분을 일으키셔야만 한다. 반대감정이 강력하게 생길 때 세상적 욕망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기에 자유로운 의지 상태에 있게 된다.⁴⁵⁾

찰스 피니가 주장했던 이른바 “영적인 흥분 상태”의 유도는 미국의 동북부의 전통주의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들은 피니의 부흥회 기법 중에 특별히 “철야기도, 회개해야 할 죄인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하는 기도,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회중에게 직접 훈계하는 것, 전통주의자를 ‘차갑고 멍청하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폄하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하는 것, 그리고 회중이 예배를 드릴 때 ‘근심의 좌석’(anxious chair)을 설치하

44) 널리 알려진 대로 찰스 피니는 “근심의 좌석”(anxious chair)이라는 제도를 사용했다.

45) 찰스 피니, 『찰스 피니의 부흥론』, 12.

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⁴⁶⁾

그러나 찰스 피니는 진통주의자들의 주장을 다음 한마디로 부정했다. “부흥은 어떤 의미에서든 이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부흥이란 도구들과 방편들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다른 어떤 결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도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서 논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결과이다.”⁴⁷⁾ 따라서 그는 부흥을 위하여 적절한 죄의식의 강조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부흥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게 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며, 결국 부흥이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⁴⁸⁾ 따라서 찰스 피니는 “홍분을 자아내는 각성운동”을 성취하기 위해서 “감정을 돋구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⁴⁹⁾

“홍분을 자아내는” 그리고 “감정을 돋구는” 방법은 회중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케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찰스 피니는 『부흥에 관한 강연』의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이란 항목에서 “홍분을 자아내기 위해” 회중이 고백해야 할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 소극적인 “태만의 죄”도 중요하지만, 부흥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중이 반드시 회개해야 할 “적극적인 죄”의 목록은 (1) 재물에 마음을 둠 (2) 자만 (3) 시기 (4) 비판 (5) 비방 (6) 격에 맞는 진지함의 결여 (7) 거짓말 (8) 사기 (9) 외식 (10)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 (11) 나쁜 성질 (12) 다른 사람들이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다.⁵⁰⁾ 찰스 피니는 이러한 “적극적인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함으로써 회중의 “홍분을 자아내는 각성운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공개적인 죄의 고백과 회개의 압력은 회중을 두 부류로 분리해냄으로써 대중 심리적인 압박이 가능해진다. 같은 책, “기도회를 인도하는 방법”에서 피니는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도회 인도자가 불신자들에게 즉각 회개토록 촉구하는 것은 대단

46) William McLoughlin, *Revivals, Awakenings and Reform: An Essay on Religion and Social Change in America, 1607-197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124. 1827년, 찰스 피니와 진통주의자들은 뉴욕의 뉴 레바논에 모여 서로에 대한 신학적 타협점을 모색하는 모임을 가졌지만 결렬되었다.

47) 찰스 피니, 『찰스 피니의 부흥론』, 16.

48) 찰스 피니, 『찰스 피니의 부흥론』, 19. “부흥이란 무엇인가”라는 항목에서.

49) 찰스 피니, 『찰스 피니의 부흥론』, 26.

50) 찰스 피니, 『찰스 피니의 부흥론』, 54-57.

히 중요한 일이다. 기도회 인도자는 이런 압력을 강력하게 가함으로 신자들에게, 죄인들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기도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죄인들에 대한 언급은 신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죄인들이 회개를 바라는 열정과 기도와 헌신의 노력을 갖도록 마음을 뒤흔든다. 신자들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죄인들의 죄와 그들이 처한 위험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⁵¹⁾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공개적인 회개를 촉구할 경우 신자들의 심리적 상태는 점차 기도의 열기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개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강한 대중 심리적인 압박은 신자들에게 기도의 동기와 열성을 부여하게 되고, 곁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시늉을 하고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 혹은 신자 중에 고백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즉각적인 회개의 “강력한 압력”은 찰스 피니가 가장 강조하던 부흥회의 기법이었다.

모든 은혜의 방도들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데 직접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도회에서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무슨 단순한 경각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각 회개하게 되도록 말이다. 누구라도 기도하거나 무슨 발언을 할 때 어떤 불신자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 불신자에게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⁵²⁾

그렇다면 과연 드와이트 무디는 찰스 피니로부터 부흥의 당위성과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을 자신의 부흥회 기법으로 사용했거나 최소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 널리 알려져 있는 무디 연구자인 스탠리 군드리(Stanley Gundry)는 이 연관성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⁵³⁾ 무디는 그의 설교나 저술에서 한 번도 찰스 피니의 부흥회 방법론

51) 찰스 피니, 『찰스 피니의 부흥론』, 157.

52) 찰스 피니, 『찰스 피니의 부흥론』, 169.

53) 스탠리 군드리, 『무디의 생애와 신학』, 96-97. 군드리는 자신의 오랜 조사에도 불구하고 무디가 피니의 책을 읽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으며, 매사추세츠 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동안 부흥회를 위한 피니의 방식을 따르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무디에서 효과적인 부흥회란 오직 회중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무디는 부흥회에 참석한 회중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개종을 유도하는 방법을 반대했던 인물이다. 무디에게 성공적인 부흥회를 위한 “강력한 수단”은 언론과 인쇄 매체를 이용한 대중 광고를 이용하는 것이었다.⁵⁴⁾ 군드리는 피니와 무디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실제로 무디가 단순히 피니의 방법을 취하여 그것들을 사업의 원리와 결합하여 인위적이거나 또는 기계적인 부흥과 개종자들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무디의 개념과 실재를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다. 무디는 선포적인 전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전도 방식을 고수했다. 이것은 그 모임의 청중들이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그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흥미 있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었다. 그는 그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였으며, 가능한 한 논쟁을 일으키거나 분열을 가져올 자료는 피하였고 감정을 진정시키려 하였다. 감정이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침착하고 조용하게 지적으로’ 인도해야 한다.⁵⁵⁾

만약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운동에서 나타났던 부흥회의 전개 방식이 무디의 부흥회 방식이 아니라 피니의 방식이었다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 무디의 영향이었다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필자는 부흥회 방식의 측면에서 1907년 평양에서의 부흥 운동은 피니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렇다면 피니 방식의 부흥회를 인도했던 선교사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촉구되었으며, “홍분을 자아내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을까?

54) 스탠리 군드리, 『무디의 생애와 신학』, 100.

55) 스탠리 군드리, 『무디의 생애와 신학』, 101-102.

4. 죄의 공개적인 고백과 한국 교회의 회개 이해

평양 대부흥 운동의 태동 단계에서부터 죄에 대한 공개적 회개가 중요시 되었다.⁵⁶⁾ 평양 심령 부흥 운동의 구체적인 묘사에서 언제나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강조되거나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⁷⁾ 「그리스도 신문」 1906년 1월 18일자 신문에 실린 존 무어 선교사의 글에서 부흥회의 첫 번째 목적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요청”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⁵⁸⁾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는 1906년의 부흥 집회에서 설교자가 회중 한 사람의 공개적인 “죄의 고백”으로 설교를 중단했다는 언급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다.⁵⁹⁾ 한 남자 성도가 서울 자교교회의 예배 도중에 일어나 자신은 “술꾼에다 노름꾼, 사기꾼”이라고 고백하는 사건도 보고되었다.⁶⁰⁾ 같은 해 이화학당의 학생들도 2주간의 특별 집회 예배 중에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으며,⁶¹⁾ 개성에서의 신년 부흥회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죄의 회개와 고백은 매우 진지하게 나타났다.”⁶²⁾ 개성의 신년 부흥회에서 일어난 회개에 대해 기록을 남긴 크램(W. G. Cram) 선교사는 매우 흥미로운 언급을 하고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죄의 회개와 고백은 매우 진지하게 나타났다.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마음에 담았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확신은 심오했고 그들의 회개는 명백했는데 이것은 내가 모국에서 목격한 것만큼이나 명확한 사건이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셨다.⁶³⁾

56) 1905년 초기의 기록에서부터 이 점이 강조되고 있다. W. G. Cram, “Revival Fires,” *KMFII* (December, 1905): 33. “The revival of genuine conviction for sin, deep repentance and complete surrender to the will and power of God...”

57) 박봉일, 윤병윤 공저, 『교회의 거룩함과 회개: 공개 죄 자백에 관한 신학적 교회사적 고찰』(인천: 예전, 1997), 260-281.

58) 「그리스도 신문」, 1906년 1월 18일자.

59) S. F. Moore, “The Revival in Seoul,” *KMFII*: 6 (April, 1906): 116.

60) C. G. Hounshell, “He Is Faithful Than Promised,” *KMFII*: 9 (July, 1906): 173.

61) L. E. Frey, “Revival at Ewa,” *KMFII* (May, 1906): 133.

62) W. G. Cram, “The Revival on Songdo,” *KMFII* (April, 1906): 113.

63) W. G. Cram, “The Revival on Songdo,” *KMFII* (April, 1906): 113.

크램 선교사는 여기서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내가 모국에서 목격한 것만큼이나 명확한 사건”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선교사 자신의 부흥회 경험보다 더 진지한 죄의 공개적인 고백이 평양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다.⁶⁴⁾ 공개적인 죄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강화했던 찰스 피니 방식의 부흥회 방식에 익숙해 있던 선교사의 관찰과 기록은 1907년에 발생한 미국의 제 2차 대각성 운동과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적 연결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헌트 선교사의 목격담에 의하면 1907년 1월 6일 주일 장대현교회에서 겨울 남자 사경회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부흥의 열기가 불붙기 시작했다.⁶⁵⁾ 공개적인 죄의 고백(public confession of sin)을 하고 나면 “회중 전체에서 동정심에 가득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1907년 1월 12일 토요일 저녁 집회에서 블레이어(W. N. Blair)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교회 내에서의 형제에 대한 미움이 모든 지체의 고통을 안겨 준다는 요지의 설교를 했을 때, 회중들은 “죄에 대해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하였다.⁶⁶⁾ 자신의 죄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이 없었던 1월 13일 주일 저녁 집회에 대해 “모든 것이 막혀 버렸고 집회는 형식적인 죽은 모임이었다.”고 그레함 리 선교사는 평가하고 있다.⁶⁷⁾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없으면 감정의 폭발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리 선교사는 이 집회를 “죽은 집회”로 표현했던 것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실질적인 시발점으로 보는 1월 14일 월요일 정오 기도회에서부터 공개적인 죄의 고백은 부흥 집회의 클라이맥스로 자리 잡았다. 그레함 리 선교사는 이 날 저녁 집회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벽 2시까지 기도하던 5-600명의 남자 성도들에게 공개적인 죄의 고백을 요청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회중들 사이에 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⁸⁾ 수

64) M. R. Hillman, “A Wonderful Week,” *KMF* II (August, 1906): 183; J. F. Preston, “A Notable Meeting,” *KMF* II (October, 1906): 227.

65) Bruce Hunt, “Impression of an Eye Witness,” *KMF* III (March, 1907): 37;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 211.

66)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화”, 『神學指南』 66:4(1999년 겨울): 161.

67) James Gale, *Korea in Transition*, 203; G.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III (March, 1907): 33.

68) G.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III (March, 1907): 34.

많은 사람들이 기립하여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위해 대열을 이루었고, 죄의 고백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몸을 던져 땅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철저한 죄책감을 표시했다.”⁶⁹⁾ 그레함 리 선교사의 요리사가 공개적으로 회개했으며, 김씨와 강씨로 밝혀져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끼리 서로에 대한 미움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화해하는 극적인 장면도 발생했다. 1월 18일 집회에 대한 기록에서도 이러한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이어졌다.

그들이 하는 죄의 고백에서도 죄 확신에 대한 힘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간증할 차례를 기다리면서 여러 시간을 서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고백의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펄쩍 뛰고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집회는 중단 없이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동안에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 가장 소름끼치는 일련의 죄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다.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죄들이 아주 깊은 죄의식 하에 고백되어졌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는 마치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에 처한 것처럼 갑자기 무섭게 통회하고 애통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마치 숨을 쉬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처럼 자기 가슴을 치기도 했다. 때로 그들 중에는 갑자기 마룻바닥에 엎어져 몹시도 통회하는 가운데 손으로 바닥을 연타하기도 했다.⁷⁰⁾

게일 선교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고백한 죄는 유아 살해, 간음, 절도, 미움, 강도죄 등이었다.⁷¹⁾ “선교사들에 대한 미움”도 죄의 고백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특별히 길선주 목사 등 한국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선교사들과의 악화된 관계 혹은 경쟁심을 고백했다.⁷²⁾ 이런 죄의

69) G.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III (March, 1907) : 34.

70) 스왈른(Swallen) 선교사가 브라운(Brown)에게 쓴 편지. 박용규의 번역.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화”, 『神學指南』 66:4(1999년 겨울):167에서 재인용.

71) James Gale, *Korea in Transition*, 207-208;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속였던 한 여성의 공개 고백도 있다. Rosetta Hall, “Convicted and Confessed,” *KMF* II (August, 1906) : 190.

72) 길선주 목사의 고백은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 212; William Blair, *My Two Crooked Fingers* (Duarte: W. N. Blair, 1964), 16. 또한 1907년 1월 19일(소위 한국 오순절 기적의 두 번째 날) 방위량(Blair) 선교사에 대한 김 장로의 고백 중 “운동장 사용과 관련하여 서두르라고 지시를 받았던 김 장로가 방위량 선교사를 미워한 죄를 고백함”에 대해서는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 232, 원문은 Graham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III (March, 1907) : 34.

목록은 찰스 피니가 그의 저서 『부흥에 관한 강연』에서 밝힌 “적극적인 죄”의 사례와 흡사하다. 피니는 자신의 저서에서 어떤 부인이 계란을 샀는데 슈퍼마켓 점원이 잘못 계산하여 가격보다 더 많은 숫자의 계란을 부인에게 주자,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계란을 반납하고 사죄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⁷³⁾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타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회개를 강조함으로써 미국 근대 도시의 윤리관에 기초한 도덕의식이 한국 교회의 죄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일부 교회사가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 교회에 죄의식과 새로운 윤리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근대 도시의 부흥회 전통(urban revivalism)과 미국적 소유 개념에서 태동한 피니의 죄에 대한 규정이 이제 막 종속적인 식민 경제 체제 아래에 편입되기 시작했던 1907년의 한국인들에게 동일한 의미론(意味論)적 가치(semantic value)를 가졌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IV.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선교학적 고찰: 결론을 대신하여

그렇다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국 기독교회사에 남긴 역사적 혹은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특별히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 교회의 선교 지향적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필자는 앞 장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드와이트 무디의 부흥회 방식이 아닌 찰스 피니의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는 부흥회의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특별히 죄의 공개적인 고백이라는 인위적인 기법이 사용됨으로써, 한국 교회의 회개 이해가 정형화되기 시작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렇다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선교학적 함의는 무엇인가?

한국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전통주의적 칼빈주의에 기초한 구원론을 극복하고 “알미니안적 칼빈주의”라는 신학적 유연성을 획득했고, 이러한 신학적 유연성을 통해 선교 지향적인 한국 교회의 특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전통적 칼빈주의에 의하면, 전적으로 타락(total depravity, 막 7:21-23, 롬 6:20)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독자

73) 찰스 피니, 『찰스 피니의 부흥론』, 182.

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엡 1:4-8)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다. 전통적 칼빈주의에 의하면 구원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요 6:28-29)이며, 그 범위는 제한되어 있고(limited atonement, 마 26:28), 단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영속성(perseverance of the saints, 요 10:27-28)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는 전통적인 칼빈주의의 편협하고 제한적인 구원론을 서서히 극복하고,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주체적인 반응(비록 대중 심리가 압력으로 작용했지만)을 통해 인간의 감정적 선택이라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신학적 유연성을 획득했다.⁷⁴⁾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라는 인간의 자발적 의지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적으로 확신되고 체험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알미니안적 칼빈주의”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한국의 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 점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전초라고 알려져 있는 원산에서 시작된 초기의 심령 부흥 운동이 “알미니안적인”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여파가 장감(長監)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신학적 유연성이 한국 교회의 특성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역사적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1907년 평양에서 전개되었던 대부흥 운동을 통해 한국의 교회(특별히 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적 요소에 유연해질 수 있었다. 이런 신학적 유연화는 한국 장로교회가 전통적인 칼빈주의의 구원론(흔히 TULIP으로 표현됨)을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⁷⁵⁾ 이러한 신학적 유연성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대중 심리적인 압박이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공개적인 죄의 고백을 통해 주체적인 “회

74) 부흥회를 통해 칼빈주의가 극복되었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학자는 미국 교회사에 나타났던 동일한 과정을 주목하기 바란다. 무디와 토레이, 그리고 빌리 선데이에 의해 주창된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제 3차 심령 대부흥 운동을 통해 전통적인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나 최소한 “신 칼빈주의(Neo-Calvinism)”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조나단 버틀러(Jonathan Butler)의 견해이다. Jonathan Butler,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Heaven and Hell in American Revivalism, 1870-1920* (Brooklyn: Carson Publishing, 1991), 1.

75) 현재 일부 한국 장로교회의 강경한 전통적 장로교회의 회귀 현상은 장로교단 내의 분열이 초래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심의 경험”이 가능하게 된 일련의 사건은 구원의 문제에 인간의 전격적이며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한 길을 열어 놓게 되었다.

1907년부터 개인의 주체적인 구원 역사의 참여가 신학적으로 가능해졌기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열기는 곧 한국 교회의 선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가 침례교단의 편협한 칼빈주의적 구원론을 극복하고 해외 선교에 앞장섰던 것처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한국의 장로교회 독노회에서 최초로 한국의 해외(Oversea)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한 것은 전혀 우연한 역사의 일치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다.

1907년은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해인 동시에 한국 장로교의 독노회가 첫 안수를 받은 한국인 목사 이기풍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 결의한 것으로부터 한국 선교의 원년이 된 해이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가 안수 받은 바로 그 해에 범교단적인 제주도 선교를 주창한 것을 통해 우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신학적 여파가 선교 운동에 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 파송 시점에 대해 선교학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1907년 독노회 회의록에 따르면, 제주도에 파송되는 사역자 이기풍을 “선교사”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도회 위원(지금은 전도국) 길선주씨가 보고함이 여좌하니 일(一) 제주에 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할 일, 이(二) 선교사의 월근과 전도 용비는 각 교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하게 부탁할 일, 삼(三) 연보할 때는 각 교회에서 연보할 편지 보는 주일에 광고하고 그 다음 주일에 연보할 일, 사(四) 제주 선교사는 리기풍씨로 전도인 혼두 사름과 동반하야 파송할일, 오(五) 원회계는 박치록씨로 텃명하며 부회계는 방위량씨로 텃명하기를 원할 일, 육(六) 전도국 위원 아홉 사름 받게 경상도 심취명 전라도 하요한 함경도 구례선 삼씨를 더 선명하기를 원할일, 칠(七) 제주 선교사와 전도인 월급 바치 리왕비와 가사비와 전도회 인허 특별비를 본 전도국에서 지출할 일. 회장이 우항의 칠도를 일일이 무르시매 회중이 동의하야 가로 결명하다.⁷⁶⁾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강조

76) 『대한예수교장로회회회록』,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1907), 16-17.

하는 교회로 거듭났다.⁷⁷⁾ 한국 장로교회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7인에 대한 기록과 이들에 대한 파송 결의에 앞서 결의된 내용이 바로 제주도 선교사 파송 건이었다. 장로교 독노회의 구성에 따른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대표단이 제일 먼저 선교사 파송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모금 계획까지 밝힌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⁷⁸⁾

평양 대부흥의 결과가 선교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은 이미 백낙준에 의해 내려진 바 있다. 백낙준은 평양에서 발생한 1907년 어간의 대부흥 운동이 미국이나 영국의 심령 부흥과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곧 한국의 부흥 운동은 선교 및 전도 운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부흥운동은 미국이나 영국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인 대상의 부흥운동과 비교인을 신자화 하려는 전도운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신자가 새롭고 또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더 높은 경지의 신앙체험을 얻게 되면 곧 신자로서의 자기책임을 깨닫게 된다. 이리하여 부흥은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새로 발견한 신앙경험을 타인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충격을 받게 하였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부흥될수록 전도활동이 넓게 퍼지고, 전도운동이 넓어질수록 교인의 수는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부흥운동과 전도운동은 신앙운동의 양면이었다.⁷⁹⁾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열기가 확산된 시점과 한국 교회의 선교 운동이 태동한 시점이 같았다는 것을 우연의 일치로 돌릴 수 없다. 찰스 피니의 부흥회 기법과 “공개적인 죄의 고백”을 통해 전통적인 칼빈주의의 구원론을 극복했던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새로운 구원 역사의 참여 가능성에 눈뜨게 되었다. 이러한 신학적 유연성은 한국 교회의 특징인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구원의 문제에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

77) “교회통신 평양 사경회”, 「그리스도 신문」(1906년 2월 1일), 107; 림경보, “평양 칠산래신”, 「그리스도 신문」(1906년 3월 8일), 236-237. 길장로, “론설, 성신을 충만히 받을 법칙”, 「그리스도 신문」(1906년 3월 8일), 229-230.

78) 제1차 장로교 독노회는 선교 비용을 마련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삼자원칙을 지켰다. 전국의 모든 장로교회에게 “제주 연보홀 편지를 포고”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선교사 파송에 따른 예산의 문제를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로회회록』,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1907), 17.

79) 백낙준, 『한국개신교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392.

과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흥을 도모했던 찰스 피니의 부흥관에 의해 한국 교회는 알미니안 칼빈주의라는 신학적 유연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는 곧 선교 운동의 촉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 교회의 2007년 백주년 기념사업은 선교 한국의 원년이었던 1907년을 함께 기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 성도들에게 선교의 필요성과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여선교사 맥컬리(L. H. McCully)가 쓴 “부흥의 열매들”(Fruits of the Revival)이란 1907년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전도부인 한나(Hannah)의 이야기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한국 교회의 선교적 열매로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1907년) 1월의 첫째 주간, 함흥에서 열렸던 부흥집회에서 명백하게 한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계속되는 집회에서 그 성령의 체험은 심화되었고 한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힘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올 봄에 여러 선교지를 나와 함께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한나에게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한나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사역에 임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한나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나는 육신의 방법에 따라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한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426권의 성경을 팔았고 3,000명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주일마다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쳤다.⁸⁰⁾

| 주제어 |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웨일즈 부흥, 인도 부흥, 드와이트 무디, 찰스 피니,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죄의 고백, 한국 교회 선교 운동.
(The 1907 Pyeng Yang Revivals, The Wales Revivals, The Indian Revivals, Dwight Moody, Charles Finney, Aministrianism, Calvinism, Public Confession of Sin, Korean Missionary Movement)

80) L. H. McCully, “Fruits of the Revival,” *KMF* III (June, 1907): 84.

참고문헌

- Ahstrom, Sydney. *A Religious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2.
- Blair, William. *My Two Crooked Fingers*. Duarte : W. N. Blair, 1964.
- Butler, Jon. "Enthusiasm Described and Decried : The Great Awakening as Interpretative Fictio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69 (September, 1982).
- Butler, Jonathan.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 Heaven and Hell in American Revivalism, 1870-1920*. Brooklyn : Carson Publishing, 1991.
- Conforti, Joseph A. *Jonathan Edwards, Religious Tradition and American Culture*. 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 Cram, W. G. "Revival Fires." *Korea Mission Field* (이하 KMF) II (December, 1905).
- Cram, W. G. "The Revival on Songdo." *KMF* II (April, 1906) : 113.
- Editorial. "Recent Work of the Holy Spirit in Seoul." *KMF* III (March 1907).
- Editorial. "The Religious Awakening of Korea." *KMF* IV (July, 1908).
- Findlay, James, Jr. *Dwight L. Moody : American Evangelist, 1837-1899*.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1969.
- Frey, L. E. "Revival at Ewa." *KMF* II (May, 1906) : 133.
- Gee, Donald. *The Pentecostal Movement : Including the Story of the War Years, 1940-1947*. London : Elim Publishing, 1949.
- Gitre, Edward. "The 1904-05 Welsh Revival : Modernization, Technologies, and Techniques of the Self." *Church History*, vol. 73, no. 4 (December, 2004).
- Gundry, Stanley. *Love Them In : The Life and Theology of Moody*. Grand Rapids : Baker Book, 1976.
- Hall, Rosetta. "Convicted and Confessed." *KMF* II (August, 1906) : 190.
- Hillman, M. R. "A Wonderful Week." *KMF* II (August, 1906) : 183
- Hounshell, C. G. "He Is Faithful Than Promised." *KMF* II : 9 (July, 1906) : 173.
- Hunt, Bruce. "Impression of a Eve Witness." *KMF* III : 3 (March, 1907).
- Kalu, Ogbu. "Modeling the Genealogy and Character of Global Pentecostalism : An Afric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35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Pentecostal Studies,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rch 23-25, 2006.
- Knoll, Mark. *America's God : From Jonathan Edwards to Abraham Lincol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Lambert, Frank. *Inventing the Great Awakening*.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 Press, 1999.
- Lee, Chang Ki. *The Early Revival Movement in Korea (1903-1907): A Historical and Systematic Study*. Zoetermeer : Boekencentrum, 2003.
- Lee, G.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III (March, 1907) : 34.
- Lee, Graham.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III : 3 (March, 1907).
- McCully, L. H. "Fruits of the Revival." *KMF* III (June, 1907) : 84.
- McCune, G. S. "Opening Days at the Theological Seminary." *KMF* III : 5 (May, 1907).
- McCune, G. S. "The Holy Spirit in Pyeng Yang." *KMF* III (January, 1907).
- McGee, Gary. "Latter Rain Falling in the East : Early - Twentieth - Century Pentecostalism in India and the Debate over Speaking in Tongues." *Church History*, vol. 68, no. 3 (September, 1999).
- McLoughlin, William. *Revivals, Awakenings and Reform : An Essay on Religion and Social Change in America, 1607-1977*.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Moore, S. F. "The Revival in Seoul." *KMF* II : 6 (April, 1906) : 116.
- Moore, Samuel F. "The Revival in Seoul." *KMF* II (April, 1906).
- Moose, J. R. "A Great Awakening." *KMF* II (January, 1906) : 51-52.
- Penn-Lewis, [Jessiel. "The Revival." *Christian Patriot* (October, 1905).
- Preston, J. F. "A Notable Meeting." *KMF* II (October, 1906) : 227.
- Reid, Alvin, and Malcolm McDow. *Firefall : How God Has Shaped History through Revivals*. Nashville : Broadman & Holman, 1997.
- Swallen, W. L. "God's Work of Grace in Pyeng Yang Classes." *KMF* III : 5 (May, 1907).
- Synan, Vinson. *The Holiness-Pentecostal Tradition : Charismatic Movements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1971.
- 군드리, 스탠리. 『무디의 생애와 신학』. 서울 : 생명의말씀사, 1985.
- 김인서. "靈溪先生小傳." 中二「神學指南」14 : 2(1932년 3월).
- 김진환. 『한국교회부흥운동사』. 서울 : 크리스찬비전사, 1976.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신개정판.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 박명수. 『한국교회 부흥운동 연구』. 서울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박몽일 · 윤병윤 공저. 『교회의 거룩함과 회개 : 공개 죄 자백에 관한 신학적 교회 사적 고찰』. 인천 : 예전, 1997.
-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화." 「신학지남」, vol. 66, no. 4(1999년 겨울).
- 박용규. 『평양 대부흥운동』. 서울 : 생명의말씀사, 2000.
-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 블레이, 윌리엄 · 헨트, 브루스. 『한국의 오순절과 그 후의 박해』(*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김태곤 옮김. 서울 : 생명의말

씀사, 1995.

서정민. “초기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이해: 민족운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종로서적, 1986, 233-283.

이덕주. 『한국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주재용. “한국 교회 부흥운동의 사적 비판: 1907년 부흥 운동을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1978년 9월호.

The Rise of Arminian Calvinism after the 1907 Pyeng Yang Revivals

Kim, Sang-Keu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The present author wants to claim that a new theological outlook emerged during and after the 1907 Pyeng Yang Revivals in the early history of Korean Protestantism. The theological framework that emerged from 1907 has been a dominant feature of Korean Christianity regardless the denominational differences of each believer until today. The present author wants to call the theological framework as “Arminian Calvinism” and the religious experience that the participants of the 1907 Pyeng Yang Revivals had was the beginning of the new theological mode in the history of Korean Protestantism.

In order to support the claim, the author presents several opinions which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view on the 1907 Pyeng Yang Revivals. For example, the author argues that there was no historical connection between the Wales and the Pyeng Yang Revivals and between the Indian and Pyeng Yang Revivals.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e Wales and Indian Revivals, which was collective speaking in tongue (Glossolalia), did not take place in Pyeng Yang. Also the present author claims that the Pyeng Yang Revivals was under influence of Charles Finney’s revivalism, not under the influence of Dwight Moody. To support this claim, the author introduces Finney’s *Lecture on Revivals of Religion* (1835) and compares the content of the book with the facts that took place in Pyeng Yang in 1907. From the similarities of the claim Finney made in his book and the happenings took place in 1907 show us that the Korean Revivals of 1907 was initiated by the “intentional” missionary motivations.

However Korean Christians were not mere (passive) receivers of missionary enterprises. For the first time, Korean Christians felt that their inner resolution to the salvation of soul was important for their Christian life. They learnt that the passive receiving of God’s grace was not sufficient enough as they wanted to live a Christian life. They realized the important of God’s unconditional election in Calvinistic sense but they also realized that they had to do something for the salvation of others in Arminian sense. By the public confession of sin, which was encouraged and promoted by American missionaries, Korean Christians realized that they had to do something to be saved. That was the beginning of “Arminian Calvinism” of Korean

Protestantism and the influence of the theological mode is evident even today.